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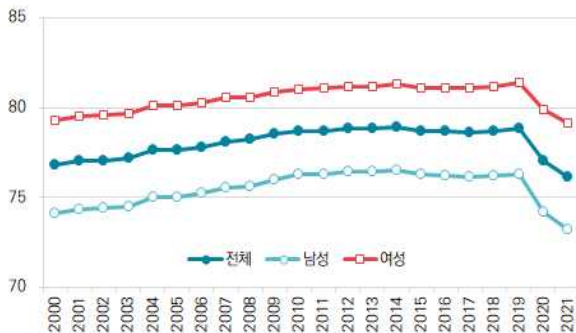
미국의 기대수명은 2021년 기준 76.1세로 199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 기대수명 감소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망원인은 코로나19, 약물 과다복용, 심장질환, 만성 간질환, 자살 등임. 기대수명 감소, 즉 사망률 상승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 지출이 급증하면서, 일부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조정함. 한편, 생명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는 생명보험회사의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미국의 기대수명¹⁾은 2021년 기준 76.1세로, 199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함

-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따르면 미국의 기대수명은 2019~2021년 사이 2.7세 감소하며, 1920년대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임²⁾
- 2021년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은 각각 73.2세, 79.1세로, 2019~2021년 사이 각각 3.1년, 2.3년 감소함
- 남녀 기대수명 차이는 2000~2010년 사이 5.2세에서 4.8세로 좁혀졌다가 2020년 5.7세, 2021년 5.9세로 커짐
- 인종별 기대수명은 빈곤, 의료접근성, 고위험직업 종사비율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차이가 존재하는데, 2019~2021년 사이 인종별로 기대수명 감소폭에 차이가 발생함³⁾

〈그림 1〉 미국 기대수명 변화 추이(2000~2021년)

(단위: 세)



자료: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그림 2〉 미국 기대수명 증감 요인(2021년 기준)

(단위: %)



자료: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1) 기대수명은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임
 2)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22. 8), "Provisional Life Expectancy Estimates for 2021"
 3) 인종별 기대수명은 2021년 기준, 아시아(85.6세), 히스패닉(81.9세), 백인(78.8세), 흑인(74.8세), 아메리카알래스카 원주민(71.8세) 등의 순이며, 2019~2021년 사이 기대수명 감소폭은 아메리카·알래스카 원주민(6.6세), 아시아(4.2세), 흑인(4.0세), 백인(2.4세), 히스패닉(2.1세) 순임(Robert H. Shmerling, MD(2022. 10. 20), "Why Life Expectancy in the US is Falling", Harvard Health Publishing)

- 기대수명 감소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망원인은 코로나19, 약물 과다복용, 심장질환, 만성 간질환, 자살 등임
 - 기대수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주요 사망원인별 비중은 코로나19(50%), 비의도적 부상(Unintentional injuries, 15.9%),⁴⁾ 심장병(4.1%), 만성 간질환 및 간경변(3.0%), 자살(2.1%) 등의 순임(〈그림 2〉 참조)
 - 기대수명 감소를 상쇄한 주요 사망원인은 인플루엔자·폐렴(3.0%), 만성 하부호흡기질환(28.8%), 알츠하이머병(18.3%), 주산기질환(Perinatal conditions, 18.3%), 파킨슨병(2.3%) 등임
 - 인플루엔자 및 폐렴 사망자 감소는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전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결과임
-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사망률 증가(기대수명 감소)가 생명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 지출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조정함⁵⁾
 - 미국생명보험협회(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생명보험산업의 사망보험금 증가율(15.4%)은 인플루엔자 전염병이 발생한 1918년(41%)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⁶⁾
 - 개인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증가율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18.5%, 10.0%이며, 단체생명보험은 동기간 중 11.6%, 15.6%를 기록함(〈표 1〉 참조)
 - 2021년 단체생명보험에서의 지급보험금 증가는 직장단체보험에 가입한 청장년층의 사망률 증가에 기인함⁷⁾
 -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적인 사망위험을 반영하여 단체생명보험 보험료를 인상함⁸⁾

〈표 1〉 미국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추이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11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개인생명보험	22.9	...	32.1	33.4	34.4	35.6	37.3	44.2	48.6
단체생명보험	15.3	...	17.6	17.5	17.7	18.2	16.6	18.5	21.4

주: 100개 대형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실적임

자료: ALIRT Insurance Research(2022. 4. 11), "Mortality for the Life Insurance Industry in 2021"

- 한편, 기대수명 감소와 팬데믹은 생명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면서 생명보험회사의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미국 생명보험산업의 2021년 1분기 신규보험료는 18% 증가했는데, 이는 2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임⁹⁾

4) 비의도적 부상에는 낙상, 자동차 충돌, 익사, 약물 과다복용에 따른 중독 등이 포함됨

5)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2022), "US Death-Benefit Payouts Hit Record High in 2021"; S&P Global(2022), "Mortality Trends Again to Take Center Stage on Life Insurers' Earnings Dockets"

6) Insurance Business(2021. 12. 10), "COVID-19 Triggers Sharpest Rise in Life Insurance Payouts since 1918 Flu Epidemic"

7) 2020년 코로나 관련 사망의 약 80%가 65세 이상이었던 반면, 2021년에는 65세 이상이 69%, 45-64세가 25%를 차지함

8) A.M. Best(2022), "With Spiking Mortality Rates Come Sharp Increase in Life Insurers' Paid Death Benefits"; The Wall Street Journal(2022. 2. 23), "Rise in Non-Covid-19 Deaths Hits Life Insurers"

9) WP(2021. 12), "U.S Life Insurance Claims Rise at Quickest Pace since 1918 Pandemic"